

(11)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 이삭의 출생(21:1-21)

1) 이삭의 출생(21:1-13)

중요내용

1. 이삭(이츠하크)의 출생과 할례 - 웃음소리(차하크)를 기억.
2. 그러나 기쁨은 위협으로 바뀌어 아이가 젖을 땀 것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큰 아이 이스마엘이 아이를 조롱.
3. 사라는 이스마엘의 추방을 요구. 하나님은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번성할 것을 재확인.

-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21:1-2/ '돌보셨고(방문했다)': 주님의 방문으로 사라의 임신이 이뤄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 하나님의 두 차례 예고대로 사라의 임신이 이뤄짐.

-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 21:3-4/ '이삭이라 하였고,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17:10, 16).
 '이삭(이츠하크)': 사라의 웃음(츠호크)과 이스마엘의 조롱(트차헤크)의 언어유희.
 '사라가 낳은 아들': 어머니로써 사라는 이 소년이 언약 계승자임을 보증.

-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우리로다
-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 21:5-7/ '백 세라, 노경에': 부모의 늙은 나이가 두 번 반복.
 '웃게 하시니, 웃우리로다': 의심의 웃음이 기쁨과 순종의 웃음으로 변화.
 '듣는 자가... 웃우리로다': 이스마엘(듣는다)과 이삭(웃음) 중에서 정당한 상속자가 출생한 것에 대한 암시.
 하갈의 멸시에 대한 복수?

-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 21:8-11/ '놀리는지라(트차헤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
 * 사라의 반응과 바울의 해석(갈 4:29)을 근거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로운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할 모든 권리를 부인하는 표현.
 '내쫓으라': 아담과 가인의 추방, 바로가 모세를 쫓아낸 일, 가나안 주민을 몰아낸 것을 서술하는 단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복형제라면 겪게 될 갈등에 대한 불길한 전조를 보고 이스마엘의 추방을 요구.
 '근심이 되었더니': 둘 중 한 아이를 택하여야 하는 곤란한 상황.
 - 이삭이 상속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큰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고통.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 12:12-13/ '근심하지 말고, 다 들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위로하시고 사라의 요구를 따를 것을 지시하심.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부를 것임이라':
 * 사라는 당장의 이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수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심.
 *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믿는 자의 선택을 증명(롬 9:7; 히11:18).

‘그러나(또한) 여종의 아들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 이스마엘로 인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심.
- * 그 약속은 이삭에 대한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음.
- * 이스마엘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많은 민족의 조상)의 실현.

2)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21:14-21)

중요내용

1. 여종과 그 아들의 추방과 구원 / 이스마엘의 사막 정착
2. 아브라함이 준 물 가죽부대 - 하나님이 주신 우물 /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보살핌에서 하나님의 관리로 옮겨 감.
3.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자립하여 새 나라를 시작.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 21:14-16/ ‘아침 일찍 일어나’:
 *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
 *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희망했던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이겨내고 순종에 이룸.
 ‘데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양육권을 하갈에게 이양.
 ‘가게 하니’: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보다 온화한 조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 브엘세바는 우물이 있는 곳. 초자연적 계시가 이뤄질 때까지 우물을 찾지 못함.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 이스마엘의 직업이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암시.
 *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은 오직 하나님만 들으심.
 ‘소리 내어 우니’: * 70인역은 이스마엘의 울음으로, 마소라는 하갈의 울음으로 기록.
 * 17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의 울음인 것 같지만 전체 문맥은 하갈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 21:17-19/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의 언어유희.
 ‘그 어린 아이의 소리’: 하갈은 들을 수 없는 이스마엘의 울음.
 ‘저기 있는’: 사막.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자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증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유사.
 -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된 계보를 위한 큰 약속(땅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에는 미치지 못함.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 하나님이 우물을 계시하심. 이미 존재했으나 보이지 않았던 것-아브라함의 숫양과 같음.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 21:20-21/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관리 감독 아래 이스마엘이 성장.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야생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16:2)에 대항할 무기.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 바란은 애굽과 가까운 곳으로 아마도 하갈은 이동하는 상인에게서 애굽 노예를 얻었을 것.

(12) 아비멜렉과의 조약(21:22-34)

1) 아비멜렉이 조약을 요구하다(21:22-26)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 21:22-26/ '군대 장관 비골': 아비멜렉을 수행.
 - * 60여년 후에 이삭의 기사에서 '비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칭호이거나 성일 가능성.
 - * 족장의 커져가는 정치적 위상을 증거.
 -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0:6-7의 경험.
 -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왕조와 왕국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후대한 대로':
 - *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연상하게 함.
 - *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선을 행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음을 인정.
 - '우물을 빼앗은 일':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고발함으로써 제안의 진정성을 시험.
 - '빼앗았다': 목자들이 자기 양 떼를 근처에 모아서 우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
 - '아브라함의 우물':
 - (1) 아브라함이 우물을 뚫고
 - (2)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이 지역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
 - '알지 못하노라,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

2)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다(21:27-30)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나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 21:27-30/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의 자발적 제물 제공.
 -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자르다'.
 -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의 번성을 위해 우물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
 - '따로 놓음은 어찌이나': 아비멜렉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안전의 보장임을 주장.
 -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증거.
 - * 아브라함의 부와 흥정하는 지위에서의 권위를 보여줌.

3) 아브라함이 예배하다(21:31-34)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 21:31-34/ '브엘세바': * 맹세(슈부아), 또는 일곱(세바)의 우물을 의미. 이스라엘 남부 국경. 조상들의 거주지.
 -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 다음에 드릴 예배(모리아 산)를 준비.
 - '에셀나무': 번성의 상징. 하나님을 자신이 얻은 번영의 원천으로 이해.
 - '영원하신 여호와(엘 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더불어 영원한 질서가 있는 언약 관계를 약속하심.

(13) 아브라함의 시험(22:1-19)

중요내용
1. 하란에서 맺어진 약속을 이를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마지막 에피소드. 2. 12:1-9와 22:1-19의 연관성: 가족으로부터 이탈 명령, 충실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수행, 복의 약속과 족장의 예배. - 과거의 모든 약속이 모리아산의 시험에 의존. 3.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두려움(경외-22:12). -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모세의 시내산의 연결 4. 아브라함의 경외와 순종은 십계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을 권세를 포기하심으로 얻은 권세에 대한 원형. -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5.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다'라고 말씀. -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 치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서 믿음의 성취를 위해 필요. -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깊어진 관계'라는 보상을 주심. 6. 사람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많은 신학적 질문을 던짐.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오직 이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

1) 시험(22:1-6)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22:1-2/ '그 일 후에': 이스마엘의 추방과 브엘세바 언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을 흐름.
 이삭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로 충분히 장성. 그러나 아직 소년(나아르)로 여겨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 제물의 정체를 일반에서 특수로 진행하며 삼 단계로 묘사(네 아들, 네 유일한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과 유사(네 고향, 네 사람들, 네 아버지 집)
 - '독자'는 이삭이 대체할 수 없는 아들임을 강조.
 '번제로 드리라': * 후손의 소망을 끊어 버림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시험.
 -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 이 명령은 노아의 번제와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의 원형으로 기능.
- 22:3/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스마엘의 추방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을 강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
 '두 종과': 이 임무의 중대성.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모리아 산에 나무가 없음이 아니라 제물이 될 짐승이 없다는 것- 이삭이 제물임을 강조.
- 22:4-5/ '제삼일': * 여행을 가리키는 상투적인 표현, 또는 결정적인 사건이나 멸망의 날을 표시할 수도 있음.
 * 아브라함에게 변심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예비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증거가 됨(히 11:17-19).
 '예배': 제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배가 이삭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종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 22:6/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은 나무를 짊어진 번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제물을 바치는 자.
 '동행하더니':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산에 오름.